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낱말’의 쓰임과 문제점

홍정현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 I. 서론
- II. 초등 국어 교과서 '낱말'의 쓰임 분석
- III. 문제점의 원인과 대안
- IV. 결론

I. 서론

‘낱말’은 한자어 ‘단어’에 대응되는 고유어로 문법 용어의 하나이다. 국어 교육에서는 대개 초등 단계에서 ‘낱말’, 중등 이상에서는 ‘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초등 문법 용어로서의 ‘낱말’은 중등 문법 용어로서의 ‘단어’와 동일시되며,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낱말’과 ‘단어’는 동의어로 명시되어 있다.¹⁾

하지만 국어 교과서에서 사용된 ‘낱말’의 쓰임을 면밀히 살펴보면, 초등 문법 용어로서 ‘낱말’의 쓰임과 범위는 중등에서의 ‘단어’라는 언어 단위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문

1) 근래에는 의미나 용법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의 쌍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관점에서 ‘동의어’보다는 ‘유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에 따르면 ‘=’은 동의어를 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낱말’과 ‘단어’를 ‘동의어’로 규정하였다. 단, ‘낱말’과 ‘단어’가 동의어이지만 기술의 편의상 둘을 구분하고자 하는데, 본고의 핵심은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낱말’이라는 문법 용어가 어떠한 개념과 범위로 쓰이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므로 ‘낱말’을 그대로 살려 쓰되, 필자의 설명이나 주장 등 일반적인 진술에서는 한자어 문법 용어인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법 용어 ‘날말’이 쓰인 양상을 분석하여, ‘날말’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초등 국어 교과서 ‘날말’의 쓰임 분석

‘날말’ 자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선행 연구로는 이창근(2015), 김억조(2018)을 들 수 있다. 이창근(2015)은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날말’이 적용되는 범위가 일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발문이나 활동에 따라 ‘체언, 체언+조사, 용언, 본용언+보조용언’ 등으로 가변적인데, 이는 교과서에 ‘날말’의 개념이 제시되지 않아 발생한 혼란으로 교과서 전체에서 통일된 범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김억조(2018)은 초등과 중등에서 각각 ‘날말’과 ‘단어’로 문법 용어가 분리된 것을 지적하고 용어 통일을 제안하면서, ‘단어’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이미 익숙하다는 점을 들어 우회적으로 ‘단어’로의 용어 선택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날말이나 단어의 용어 선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날말’과 ‘단어’가 결국 같은 언어 단위인데, 그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초등과 중등에서 각각 다른 단위처럼 기술된다면, 학습자의 오개념 형성의 측면에서나, 문법 교육에서의 정확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창근(2015)의 지적과 같이, 초등 국어 교과서 전체에서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창근(2015)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학습용어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두루 다룬 논의로, 다양한 문제들을 비판하는 가운데 ‘날말’의 유동적 사용 양상을 지적하였으므로, ‘날말’이 사용된 예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니다.

또한 이창근(2015)에서는 ‘날말’의 범위가 유동적으로 사용된 문제의 원인을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날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혼란으로 보았으나, 교과서에서 ‘날말’의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설명하지 않은 것과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날말’을 임의적·유동적으로 해석하여 기술함으로써 문제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5 개정 초등 국어과 교과서²⁾에서 ‘날말’이 사용된 예를 전수조사하여 ‘날말’이 지칭하는 범위를 알아보고, ‘날말’이 사용된 상황과 맥락을 분석하여 문제 발생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날말’의 정의

날-말² 발음 [난:말] 「명사」

「언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철수가 영희의 일기를 읽은 것 같다.”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철수’, ‘영희’, ‘일기’, ‘읽은’, ‘같다’와 조사 ‘가’, ‘의’, ‘를’, 의존 명사 ‘것’ 따위이다. =단어.

(국립국어원, 2022)

(1)에서는 ‘날말’을 ‘분리성’과 ‘자립성’을 가진 말이나 그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단어’와 동의어임을 밝히고 있다. 즉 ‘날말’과 ‘단어’는 그 개념과 범주가 동

2) 본고에서 활용한 교과서는 『국어 1-1 가』(교육부, 2017ㄱ), 『국어 1-1 나』(교육부, 2017ㄴ), 『국어 활동 1-1』(교육부, 2017ㄷ), 『국어 2-1 가』(교육부, 2017ㄹ), 『국어 2-1 나』(교육부, 2017ㅁ), 『국어 활동 2-1』(교육부, 2017ㅂ), 『국어 2-2 가』(교육부, 2017ㅅ), 『국어 2-2 나』(교육부, 2017ㅇ), 『국어 활동 2-2』(교육부, 2017ㅈ), 『국어 활동 3-1』(교육부, 2018ㄱ), 『국어 3-2 가』(교육부, 2018ㄴ), 『국어 활동 3-2』(교육부, 2018ㄷ), 『국어 4-1 나』(교육부, 2018ㄹ), 『국어 5-2 가』(교육부, 2019ㄱ), 『국어 6-2 가』(교육부, 2019ㄴ)이며 본문 제시는 교과서 명 및 쪽수(“국어 학년 - 학기 - 분권: 쪽수”)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하며, 단지 둘의 차이는 고유어와 한자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는 (1)과 같은 ‘낱말’ 자체에 대한 정의는 다루지 않으며, 설령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제시해도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사실상 ‘낱말’ 또는 ‘단어’라는 용어는 아동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정의나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친숙한 문법 용어이며, 문법 단위이다.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 단위가 단어임은 물론이고, 취학 전 아동들이 흔히 하는 말놀이, 즉 ‘낱말 맞추기’, ‘끝말잇기’, ‘낱말 퍼즐’ 등도 ‘낱말’, 즉 단어라는 단위를 전제로 하고,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아동은 하나의 문법적 단위로서 ‘낱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즉, ‘낱말’은 별도의 문법적 설명이 없어도 다양한 언어 사용 장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용어에 노출되고, 그 개념이 체득된다.

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낱말’은 1-2학년군 『국어 1-1 가』의 1단원,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의 단원 학습 목표인 ‘바른 자세로 낱말을 읽고 써 봄시다.’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즉, 국어 교과서를 펼치자마자 ‘낱말’을 접하게 되고, 따라서 ‘낱말’이라는 문법 용어를 접하는 것으로 국어 교육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ㄱ. 바른 자세로 **낱말**을 읽고 써 봄시다. (국어 1-1 가: 6)³⁾

ㄴ. 소리 내어 **낱말** 따라 읽기 (국어 1-1 가: 14)

ㄷ.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낱말**을 말해 봄시다. (국어 1-1 가: 24)

ㄹ. 각 **낱말**의 파란색 자음자 소리를 알아봄시다. (국어 1-1 가: 49)

초등 국어에서는 문법적 단위로서 ‘낱말’ 자체에 대한 학습보다는 대체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 목표’나 ‘학습 문제’를 제시하는 와중에 자

3) 강조는 필자. 이하 동일.

연스럽게 ‘날말’을 언급한다. 이는 학습자가 ‘날말’이라는 문법 단위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둘 중 어떠한 의도이든 문법 용어로서 ‘날말’의 정의나 범주는 간단히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체득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초등 학습자가 ‘날말’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교과서 기술에서의 명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고의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다. 이에 학습 목표나 학습 문제의 제시가 함유하는 ‘날말’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5 개정 초등 국어과 교과서에서 ‘날말’이 쓰인 경우를 전수 조사하고, ‘날말’이 지칭하는 예를 모두 추출하였다.

4 그림에 알맞은 날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보기

느리다 놀이다 깎다 깊다









5 알맞은 날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 옛가락을 길게 (놀이다, 느리다).
- 동물들이 더위에 지쳐 (느리게, 놀이게) 움직이고 있다.

1. 파란색으로 쓰인 날말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며 「수아의 봉사 활동」을 읽어 봅시다.

수아의 봉사 활동

글: 고수산나, 그림: 이해정

일요일 아침이라 더 자고 싶었는데 엄마가 깨웠다.
 “수아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지? 가족 봉사 활동 가기로 한 일요일이잖아. 얼른 일어나.”
 나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썼지만 곧 엄마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 가족이 간 곳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계시는 요양원이었다.
 뽕 해아 할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안경 쓴 할머니가 나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다.
 “여기 책 좀 읽어 줄래? 내가 이제 때도 예전에는 문학소녀여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
 할머니는 낡은 책 한 권을 내미셨다. 다른 책이 없어서 같은 책만 스무 번을 넘게 읽으셨다고 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책 읽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셨다.
 “할머니, 다음에 올 때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올게요.”
 나는 할머니와 약속을 했다.

〈그림 1〉 ‘날말’을 지칭하는 예(국어 2-1 가: 105, 국어 4-1 나: 202)

예를 들어, 〈그림 1〉의 ‘학습 문제’에서는 ‘그림에 알맞은 날말’, ‘알맞은 날말’, ‘파란색으로 쓰인 날말들’에서 ‘날말’이 지칭하는 것으로 ‘느리다, 놀이다, 깎다, 깊다, 느리게, 놀이게, 간, 오라고, 책’을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6학년 『국어』와 1-4학년 『국어 활동』⁴⁾에 등장하는 ‘날말’과 그에 따른 예를 모두 살펴보고, ‘날말’로 지칭된 예 중에서 일반적으로 ‘단어’라고 일컬어지는 문법 단위와 일치하지 않거나 그 범위가 모호하게 기술된 것을 중심으로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용어 ‘날말’의 쓰임의 특이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학습 문제와 ‘날말’의 예

교과서	쪽	학습 문제와 ‘날말’의 예
국어 1-1 가	14-16	소리 내어 날말 따라 읽기: 나, 너, 우리, 친구,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아기
	24-27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날말을 말해 봅시다: 거미, 나무, 나비 다음 날말을 따라 써 봅시다: 참새, 제비, 구두
	114	글자의 짜임을 생각하며 날말을 써 봅시다.: 자라, 노루, 치과, 아파요
국어 1-1 나	156	초록색으로 쓰인 자음자를 살펴보고 날말을 읽어 봅시다.: 숲, 집, 발, 돌, 강
	169	날말을 바르게 써 봅시다: 동동, 엄마, 풍덩, 풍당
국어 활동 1-1	74	그림에 어울리는 날말을 완성해 봅시다: 김밥, 약국, 점심, 운동장, 책꽂이, 은행
	76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날말을 골라 문장을 써 봅시다: 구름니다, 씹니다, 탑니다, 흔듭니다

〈표 1〉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날말’로 지칭된 예시의 일부를 보인 것으로, 모두 단어와 동일한 범주의 예임을 알 수 있다. 1-6학년에 이르는 초등 국어과 교과서에서 ‘날말’이 지칭하는 바는 〈표 1〉과 같이 대부분 단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칭하고자 하는 단위가 단어가 아닌 경우의 처리 방식은 아래 (3)을 예로 들 수 있다.

4) 5-6학년군에는 『국어 활동』이 없음.

(3) ㄱ. 보기의 **말**을 넣어 그림에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 두꺼비가, 콩쥐가, 도와줍니다, 항아리가

ㄴ. 보기의 **말**을 넣어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 인사를, 만납니다, 자라의, 용궁으로, 댔습니다

ㄷ. 보기의 **말**을 넣어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 꽃잎에, 강아지가, 앉았습니다, 굴립니다, 나비가, 공을

(국어 1-1 나: 183-185,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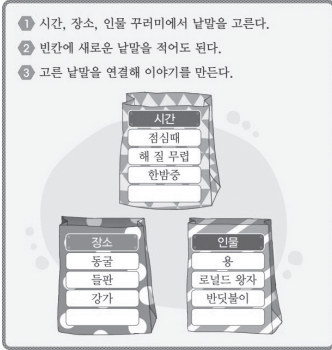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단위를 지칭할 때는 ‘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같은 학년, 같은 단원의 학습 문제에서 그것이 지칭하는 단위에 따라 ‘낱말’과 ‘말’로 표현한 것은, 문법 단위로서 ‘낱말’을 구분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의 ‘낱말’과 (3)에서의 ‘말’의 변별적 사용은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낱말’이라는 언어 단위를 의식적으로 구분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낱말’은 대응 용어인 ‘단어’와 다르지 않다. 이처럼 ‘낱말’과 ‘단어’는 동일한 사전적 정의 및 문법적 개념을 공유하는 동의어이며, 따라서 단어와 마찬가지로 ‘낱말’도 그 쓰임이나 의미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분류의 결과를 일컬어 ‘품사’라고 한다.

즉 ‘낱말’로 지칭되는 개별 어휘는 적어도 하나의 품사로 귀결되며,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조사’의 9개 품사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표 1〉에서도 명사(친구, 선생님, 숲, 운동장 등), 대명사(나, 너, 우리), 부사(둥둥, 풍당, 풍덩), 동사(구릅니다, 흔듭니다 등), 형용사(아파요)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낱말’이 지칭하는 것이 단어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 〈그림 2~5〉는 ‘낱말’이 가리키는 예들이 문법 단위로서 단어의 범주와 맞지 않는 경우이다.

4 「종이 봉지 공주」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꾸며 봅시다.



〈그림 2〉 ‘날말’ 사용의 예 1(국어 2-2 나: 200)

1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3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발음에 주의하며 다음 문장을 읽어 봅시다.

- 우거진 숲에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린다.
- 꽃에 나비가 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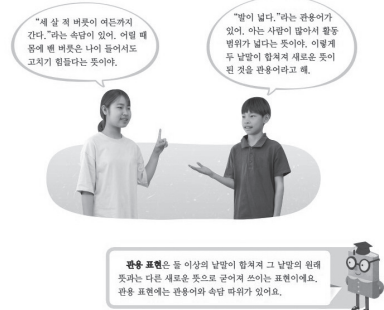
〈그림 3〉 ‘날말’ 사용의 예 2(국어 활동 2-2: 23)

4 「숨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에 나오는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그림 4〉 ‘날말’ 사용의 예 3(국어 2-2 나: 239)

3. 관용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그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 따위가 있어요.

〈그림 5〉 ‘날말’ 사용의 예 4(국어 6-2 가: 87)

〈그림 2〉는 「종이 봉지 공주」의 뒷이야기를 상상으로 꾸며 보기 위하여 ‘시간, 장소, 인물 꾸러미에서 낱말을 고르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꾸러미에는 ‘해 질 무렵’, ‘도널드 왕자’와 같이 단어의 범위를 벗어난 구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꾸러미에 단어와 구 구성을 제시하고, 빈칸에 ‘새로운 낱말’을 적어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학생들이 뒷이야기를 꾸미기 위해 선택할 ‘새로운 낱말’은 단어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단어가 나열된 다양한 구 구성, 예를 들면 수식어와 체언의 결합과 같은 구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언어 단위에 대한 민감성을 지닌 학습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흔히 ‘끝말잇기’나 ‘날말 맞히기’ 등, 단어를 기본 단위로 이루어지는 초 등 학습자의 말놀이를 관찰해 보면, 상대방의 제시어가 ‘단어’ 혹은 ‘날말’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과 논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초등 학습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언어 단위를 범주화하고 각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언어 단위의 경계에 대해 고민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림 2〉와 같은 예가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 〈그림 2〉에 제시된 학습 활동을 마쳤을 때, 초등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던 단어의 범주나 개념이 오히려 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법 영역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문법 단위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은 국어 교과서의 기본 전제여야 한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는 ‘파란색으로 쓰인 날말’이 가리키는 것 중에 ‘잎이’, ‘부엌에’, ‘숲에서’, ‘꽃에’, ‘숲이라도’, ‘결에’, ‘흙이’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으로,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하나의 단어가 아닌 둘 이상의 단어 결합을 ‘날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5〉의 ‘밭이 넓다’라는 관용어에 대한 남학생의 설명에서는, ‘두 날 말이 합쳐져 새로운 뜻이 된 것을 관용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밭이’와 ‘넓다’를 각각 하나의 날말로 보았을 때나 가능한 설명이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조사에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 문법을 고려한 수정이 필요하다.⁵⁾

이처럼, ‘날말’이 지칭하는 예가, 하나의 문법 단위로서의 단어와 일치하지 않거나 그 경계가 모호하게 기술된 경우를 모두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 아래 〈표 2〉이다.

5)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는 조사의 단어 인정 여부나 조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조사에 대한 설명은, “날말과 날말 사이는 띄어 쓰되, ‘이/가, 을/를, 은/는, 의’와 같은 말은 앞말에 붙여 써요(국어 3-2 가: 105, 국어 활동 3-2: 36).”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날말과 날말 사이는 띄어 쓰되”라는 언급을 통하여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 ‘날말’의 지칭어가 단어의 범위와 맞지 않는 예

교과서	쪽	항목	학습 문제와 ‘날말’의 예
국어 2-1 나	160	가	‘날말을 읽고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날말 에 ○표를 해 보세요: 구름보다, 구름이, 구름은, 구름도, 구름을, 구름과, 구름에
	161	나	파란색으로 쓰인 날말 에 주의하며 「욕심 많은 개」를 읽어 봅시다: 구름이, 집으로, 길에 떨어진, 입에, 강물에
	163	다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날말 을 골라 읽으며 미로를 빠져나가 봅시다: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로, 생일은, 길로, 길을, 수요일, 목요일, 부모님께, 부모님의, 마음도, 마음이, 물건과, 물건을, 공원을, 공원에
국어 활동 2-1	57- 58	라	문장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글자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날말 에 ○표를 해 봅시다: 가족, 함께, 동물원에, 목이, 기린을, 한참, 길어지는, 졸음을, 호랑이를, 웃음이
국어 2-2 가	157	마	문장을 소리 내어 읽고 보기와 같이 글자와 다르게 소리 나는 날말 을 찾아봅시다: 여름에, 집으로, 앓아
국어 2-2 나	200	바	「종이 봉지 공주」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꾸며 봅시다. ① 시간, 장소, 인물 꾸러미에서 날말 을 고른다. ② 빈칸에 새로운 날말 을 적어도 된다. ③ 고른 날말 을 연결해 이야기를 만든다. 시간: 점심때, 해 질 무렵, 한밤중 장소: 동굴, 들판, 강가 인물: 용, 도널드 왕자, 반딧불이
국어 2-2 나	239	사	「숲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에 나오는 파란색으로 쓰인 날말 을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숲이라도, 작은, 맑은, 곁에, 흠이
국어 활동 2-2	23	아	파란색으로 쓰인 날말 의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잎이, 부엌에 파란색으로 쓰인 날말 의 발음에 주의하며 다음 문장을 읽어 봅시다: 숲에서, 꽃에
	51	자	1. 다음 날말 을 소리 내어 읽고 글자와 다르게 소리 나는 것에 ○표를 해 봅시다: 바람을, 깨끗이, 많이, 길에, 취미는, 노래를, 동물을, 옆에, 그림을
	52	차	보기와 같이 문장에서 틀리게 쓴 날말 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 써 봅시다: 기레, 그리울, 꾸든
국어 활동 3-1	21	카	파란색으로 쓰인 날말 의 표기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 많 갔다, 많 나아서
국어 활동 3-2	21	타	파란색으로 쓰인 날말 의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높이, 무릎에 파란색으로 쓰인 날말 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주의하며 문장을 읽어 봅시다: 서녘에, 빛이
국어 5-2 가	98	파	1과 같이 토의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날말 을 찾아 써 보세요: 의견 및 근거, 토의 진행, 토의 태도

〈표 2〉의 항목은 그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둘 이상의 단어가 나열된 ‘구’ 구성을 표현할 적절한 용어를 제시할 수 없어 단순히 ‘날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바, 카, 파’를 들 수 있다. ‘바, 카, 파’에서 ‘날말’로 지칭하였으나 단어라는 문법 단위를 넘어선 예는, ‘해 질 무렵’, ‘도널드 왕자’, ‘않 갔다’, ‘않 나아서’, ‘의견 및 근거, 토의 진행, 토의 태도’인데, 모두 구 구성이다.

그 외, ‘가, 나, 다, 라, 마, 사, 아, 자, 차, 타’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날말’로 지칭한 경우에 해당하며 흔히 ‘어절’로 불리던 것으로, 모두 ‘연음 현상’과 관련이 있다. 연음 현상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앞 음절의 끝소리인 자음이 뒤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초등 국어과 교과서는 표기와 발음의 측면에서 연음 현상을 비중 있게 다룬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날말’이 단어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구’ 구성과 ‘체언+조사’를 ‘날말’로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날말’이 지칭하는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의 원인을 진단해 보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문제점의 원인과 대안

‘날말’로 지칭된 예가 단어의 범위를 벗어나 유동적으로 적용된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문법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에 대한 검토를 정치하게 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날말과 구, 하나의 어절을 이루는 체언+조사 구성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된 채 기술한 것인데, 특히 연음 현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에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아래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
바르게 읽기

국어 활동 57~58쪽

1 발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봅시다.

(1) 낱말을 읽고 발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에 ○표를
해 보세요.

구름보다

구름이

구름과

구름은

구름에

구름도

구름을

(2) 낱말의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세요.

구름 + 이

구름이

[구르미]

구름 + 은

구름은

[]

구름 + 에

구름에

[]

“구름을”에서 발침 ‘으’이 뒤에 오는 ‘으’를 만나면 뒷말 첫소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구르름]이라고 소리가 나요.

〈그림 6〉 초등 국어 연음 관련 학습(국어 2-1 나: 160, 163)

〈그림 6〉의 1 - (1)에서는 “낱말을 읽고 발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에 ○표를 해 보세요.”라는 지문이 제시되는데, 고유한 문법 단위로서의 ‘낱말’을 생각한다면 ○표시가 될 ‘낱말’은 조사 ‘이, 에, 은, 을’과 결합하는 ‘구름’이다. 그러나 문장의 서두에 제시된 “낱말을 읽고”의 ‘낱말’은 ‘구름’과 조사의 결합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름’만을 읽어서는 ‘발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5의 미로 찾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길들[기들]’과 ‘길로[길로]’에서 ‘발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은 ‘길들’의 ‘길’뿐이다. 그러나 ‘길들’의 ‘길’이 연습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길들’을 골라 읽어야 하며, 이는 동일한 문장 내에서 ‘낱말’이 지칭하는 범위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또한 5에서 답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것은 ‘할아버지, 생일은, 길들, 목요일’이다.

286 국어교육학연구 제57집 제3호 | 2022년 9월

일, 부모님의, 마음이, 물건을, 공원에’로, 이 중 ‘할아버지, 목요일’은 하나의 단어이고, ‘생일은, 길을, 부모님의, 마음이, 물건을, 공원에’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 즉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그 단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들을 ‘낱말’로 모두 지칭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술에서 문법 단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자는 물론 교사에게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둘째, 만약 ‘낱말’이라는 문법 단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쓰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구’나 ‘어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

황미향(202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등 국어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문법 지식 내용이나 문법 용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나 ‘어절’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기 곤란함에 따라 ‘낱말’로 뭉뚱그려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크다.

초등 국어에서는 문법 용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용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념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을 대신 제시한다. 예를 들면, 〈그림 6〉에서 보듯 ‘연음’이 아닌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과 같이 표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 방식을 추구하면서 ‘구’나 ‘어절’을 도입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낱말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 국어 문법 기술의 역사에서 낱말(단어)의 범주에 대한 논쟁은 이른 시기부터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단어의 정의와 그 범위는 품사 설정을 비롯하여 국어 형태론 및 통사론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6) ‘연음’의 본래 정의를 고려하면 ‘어절’보다는 ‘음절’ 단위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지만, 제시된 교과서 내용의 표면적인 기술에서 지칭하는 단위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음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어의 범주와 관련하여서 가장 첨예한 과거의 논쟁은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분석적 견해,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종합적 견해,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고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절충적 견해가 있었으나(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 2019: 24), 규범 문법과 학교 문법에서 절충적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국어에서의 단어 범주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기술 문법에서는 조사와 어미의 단어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단어를 형태론적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음운론적 단어, 어휘적 단어, 통사론적 단어를 포함하여 다층적인 측면에서 단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등, 단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박진호, 2010; 최형용, 2012; 한정환, 2009).

그렇다면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단어에 대한 다양한 기술 문법의 견해를 받아들여 ‘구’나 ‘어절’을 ‘낱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단어의 범주에 대한 확장적 관점으로 교과서를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데, 단어를 확장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구’와 ‘어절’을 포함하여 교과서를 기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것을 의도하였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낱말’의 범위를 정하였다는 것 자체로서, 학교 문법의 틀을 벗어나 초등 국어 문법 내용을 기술한 것이며, 특히 현재로서는 단어의 범위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 문법의 논의가 학교 문법에 수용되기 위한 기본적인 논의의 과정조차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는 상황에서 초등 문법이 단독으로 이를 반영했다면, 초중등 문법의 연계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또한 앞서 언급한바, (3)에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단위를 지칭하기 위해 일부터 ‘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낱말’을 확장적 관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결국,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낱말을 지칭하는 범위가 유동적인 것을 단어의 개념에 대한 확장적 관점에 의한 기술로 보기는 어려우며, 결정적인 원인은 문법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나 ‘어절’을 대신 지칭할 수 있는 단위로서 학습자에게 익숙한 ‘낱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기술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 또한 ‘낱말’의 범위가 유동적으로 사용되는 데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과서 기술을 명확하게 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문법 용어의 도입일 것이다. 그러나 ‘낱말’로 지칭된 단위가 유동적으로 쓰인 예가 저학년의 교과서에서부터 등장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구’나 ‘어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것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낱말’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표 1>과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기의 말’과 같이 나타내거나 ‘파란색으로 쓰인 말’,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직접적인 지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⁷⁾ 다만, 중고학년에서 순차적으로 용어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문법 교육 내용 기술의 간결성과 명확성의 측면은 물론, 학습자의 이해 및 중등 문법 교육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초등 국어의 문법 용어 최소화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몇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초등의 타 교과와 달리 초등 국어에서는 용어 사용에 지극히 소극적인데(황미향, 2021),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추상적인 개념어를 적절히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김억조, 2018), 그러한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 국어에서 문법 용어 사용 범위에 대한 수용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홍정현, 2021).

7) 이러한 직접적 지시는 학교급이나 학년의 고저와 관계없이 통용 가능한 방법이다.

선행 연구들의 지적처럼 문법 용어의 도입이 반드시 학습 내용이나 학습 과정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낱말’을 지칭한 예에서 문제가 되는 ‘구’나 ‘어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타 교과에 제시된 용어의 수준과 견주어 보았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에 서 낱말이 둘 이상 나열된 구성이 ‘구’임을 설명하고 ‘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는 ‘어절’의 경우, 하나의 언어 단위로서 문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예들에서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낱말’로 지칭하는 것보다는 ‘어절’을 도입하는 것이 학습자가 본래 인식하고 있던 ‘낱말’의 범주에서 벗어난 지칭을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낱말’이라는 용어의 경계가 모호하게 사용되거나 하나의 명확한 문법 단위로서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법 영역의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2015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용어 ‘낱말’이 사용된 용례를 통하여, ‘낱말’이 하나의 문법 단위로서 ‘단어’와 동의어임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범주와 달리 유동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국어 교과서의 일부 기술에서 ‘해 질 무렵’, ‘도널드 왕자’, ‘의견 및 근거’ 등과 같이 단어의 범위를 벗어난 구 구성을 ‘낱말’로 지칭하거나 ‘부엌에’, ‘있이’, ‘줄음’ 등과 같이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낱말’로 표현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낱말’로 지칭

한 예는 대부분 연음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날말’의 범위가 유동적으로 적용된 이유는 학습 활동 안내 등 교과서의 일반적인 제시문을 비롯하여 문법 개념의 설명에 이르기까지 ‘구’, ‘어절’과 같은 생소한 용어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이미 초등학교가 알고 있는 친숙한 언어 단위인 ‘날말’을 한정적으로 활용하여 언어 단위를 지칭하거나 문법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날말’이라는 용어가 일관성 없이 쓰이면 학습자들이 오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초·중등 문법 교육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의 고유한 언어 단위로서 ‘날말’은 ‘단어’와 동일한 문법적 의미와 역할을 갖는 용어로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2.07.28. 투고되었으며, 2022.08.07. 심사가 시작되어 2022.09.1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17ㄱ), 『국어 1-1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ㄴ), 『국어 1-1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ㄷ), 『국어 활동 1-1』,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ㄹ), 『국어 2-1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ㅁ), 『국어 2-1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ㅂ), 『국어 활동 2-1』,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ㅅ), 『국어 2-2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ㅇ), 『국어 2-2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ㅈ), 『국어 활동 2-2』,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ㄱ), 『국어 활동 3-1』,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ㄴ), 『국어 3-2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ㄷ), 『국어 활동 3-2』,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ㄹ), 『국어 4-1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9ㄱ), 『국어 5-2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9ㄴ), 『국어 6-2 가』, 서울: 미래엔.
- 국립국어원(2022. 3. 31.),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자 2022.7.1., 사이트주소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김억조(2018), 「초·중학교 국어 ‘문법’ 영역 용어 사용 양상과 개선 방안」, 『교육과정평가연구』 21(1), 107-128.
-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표준국어문법론』, (전면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 박진호(2010), 「언어학에서의 범주와 유형」, 『인문학연구』 17, 265-292.
- 이창근(2015),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학습용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553-573.
- 최형용(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하여」, 『형태론』 14(2), 223-263.
- 한정환(2009),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언어』 34, 761-788.
- 홍정현(2021), 「초·중등 문법 교육 내용의 연계성에 대하여 - ‘단어의 형성’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43, 261-307.
- 황미향(2021), 「초등 문법 교육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70, 319-339.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낱말’의 쓰임과 문제점

홍정현

본고는 ‘단어’의 동의어인 ‘낱말’이 초등 문법 교육에서 유동적인 언어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2015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낱말’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낱말’이 단어의 범위를 벗어난 ‘구 구성’이나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가능한 한 ‘구’나 ‘어절’와 같은 문법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학습자에게 익숙한 ‘낱말’을 사용한 것, 그리고 교과서 기술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초등 국어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중등 문법 교육과의 연계성의 측면에서도, ‘낱말’과 ‘단어’는 동일한 문법적 의미와 역할로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핵심어 초등 국어 문법, 낱말, 단어, 단어의 범주, 문법 용어

Uses and Problems of “Natmal” i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Hong Jeonghyun

This study highlighted the problem that “natmal,” a synonym for “word,” is used as a flexible linguistic unit in elementary grammar education, and revealed the cause. Accordingly, analysis of the usage of “natmal” in the elementary Korean textbooks revised in 2015 revealed cases where “natmal” was used differently from the range of the word as it referred to “phrase composition” or “noun+participle”.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exclusion of grammatical terms such as “phrase” and “each part of a sentence” i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the use of “natmal” familiar to learners, and the failure to examine the textbook’s description in detail.

However, “natmal” and “word” are terms that have the same grammatical meaning and role, and should be used consistently. Because problems may occur not only in the descriptive consistency aspect of elementary language textbooks but also in cooperation with secondary grammar education.

KEYWORDS Elementary Korean Grammar, Natmal, Word, the Category of Words, Grammar Terms